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가족생활사건, 사회적 지원, 자녀의 지원과 생활만족도*

Family Life Events, Social Support, Support from Children,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Low-Income Female Earners*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이재림
교수 옥선화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

Doctoral Course : Lee, Jae Rim

Professor : Ok, Sun Wha

◀ 목 차 ▶

- | | |
|------------------|---------------|
| I. 문제제기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관련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was on low-income female earners, and focused on family life events, social support, and support from children which low-income female earners had experienced. It also examined how family life events, social support, and support from the children affected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of the low-income female earner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356 low-income female earners whose first child was of school age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analysis of the data showed the following results:

1. The low-income female earners experienced finance and business strains more than other family life events. The significant family life events that affected their life satisfaction were intra-family strains, finance and business strains, and illness and family care strains.
2. The level of social support was average. The low-income female earners reported that their relatives had provided the largest amount of support among their social network; however, only support from their friends affected their life satisfaction. Emotional support was the common support type which low-

* 이 논문은 1999년도 두뇌한국21 사업 핵심분야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income female earners had received.

3. The perceived level of support from children was high, and it was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 that affected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low-income female earners.

주제어(Key Words): 저소득층 여성가장(low-income female earners), 가족생활사건(family life events),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 자녀의 지원(support from children),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

I. 문제 제기

산업화와 서구화에 따른 여성의 취업 증가로 임금노동에 종사하는 기혼여성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인 가족부양은 남성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지배적인 상황에서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가장은 대부분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특히 IMF 금융관리체제 이후 지난 몇 년간의 고용구조조정은 여성가장의 불리한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여성가장가족의 빈곤가족화가 심화되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일반가구의 여성가장 비율은 16.6%인데 비하여 생활보호가구 중 여성가장의 비율은 52.8%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가장의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보건복지부, 1999; 통계청, 1997). 따라서 저소득층 여성가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한 복지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저소득층 여성가장은 생계 부양자역할과 함께 가사노동과 자녀양육까지 담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역할과중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남성은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여성은 가정 내에서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을 담당하는 것이 규범적이라는 부양자역할 고정관념과 남녀차별적인 사회구조 등은 이들의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저소득층 여성가장은 여성이라는 스트레스와 더불어 저소득층이라는 계층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두 가지가 중복되는 이중적인 심리적 압박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다(김경신, 김오남, 1998; 김인숙, 1992).

이렇듯 취약한 지위에 있는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어려움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들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접근을 위해서 여러 선행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김경신, 김오남, 1998; 신화용, 조병은, 1996; Simons, Beaman, Conger, & Chao, 1993)은 주로 사별이나 이혼을 경험한 편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여성가장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가장을 제외하고 있다. 유배우 여성가장의 경우 남편이 가족부양이라는 도구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가출, 별거 등으로 인해 가족 내에 부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리하여 유배우 여성가장은 남편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에서 오는 괴리감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IMF 관리체제이후 남편의 실직으로 부인이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이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며 낮은소득 수준으로 인하여 스트레스에 취약한 집단인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별과 이혼한 여성가장 뿐 아니라 배우자가 있는 여성가장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상대적으로 자원이 취약한 저소득층 여성가장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가족생활사건의 경험은 이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리라고 예상된다. 가족이 겪게 되는 위기와 갈등은 대개 사회적 영향력, 발달상의 전이, 가족체계 내부의 문제의 세 가지 요인과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최연실, 1996),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여성가장은 이들 요인에 취약한 집단이므로 더 많은 가족생활사건을 경험할 것이다. 따라서 자녀양육기에 있는 저소득층 여성가장이 경험하는 가족생활사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가족생활사건이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저소득층 여성가장에 대한 주위로부터의 지원은 가족생활사건을 통하여 유발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자원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다. 지원은 위기에 처한 개인의 기능과 적응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해 개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며(Thoits, 1982), 스트레스 상황에서 물질적, 정신적, 인적 지원의 중요한 공급원으로 작용한다(최연실, 1996). 그러므로 저소득층 여성가장에게 주어지는 지원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생활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저소득층 여성가장에 대한 지원의 경로는 가족내적 지원과 가족외적 지원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남편의 부재 또는 역할수행의 결핍 상황에서 자녀의 지원이 가족내적 지원으로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고, 친척, 친구, 이웃 등 사회관계망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이 여성가장에게 도움이 되는 가족외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그런데 편모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김영희, 1996; 최해경, 1997; Gladow & Ray, 1986; Simons et al., 1993)에서는 주로 가족외적 지원인 사회적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이고, 자녀가 여성가장의 생활에 미치는 긍정적인 역할에 관심을 둔 경우는 드물다. 이는 편모가족이 편모와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이라는 구조기능론적인 시각이 주를 이루어(신화용, 조병은, 1996), 자녀를 대체로 부담이나 문제의 대상으로 접근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여성가장들이 자녀를 삶의 목적이자 의지처라고 생각한다(김경애, 1999)는 점을 고려할 때, 여성가장에게 자녀는 부양의 대상인 동시에 정서적,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의 지원이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저소득층 여성가장이 경험한 가족생활사건, 사회적 지원과 자녀의 지원의 양상을 파악하고 이들 요인이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 제고에 도움이 되는 요인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복지정책과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관련연구 고찰

1. 가족생활사건과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

가족생활사건이란 기존 가족체계 내에 변화를 일으키거나 변화를 일으킬 잠재력을 가지고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비연속적인 생활사건과 전이(Lavee, McCubbin, & Olson, 1987)라고 정의된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김경신, 김오남, 1997, 1998; 김태현, 조희선, 1991; 최연실, 1996; Lavee et al., 1987)에서 가족생활사건은 가족체계가 현상태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거나 기존 가족체계에 변화를 일으킬 잠재력을 가지는 스트레스원으로 취급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에 있어서 이들이 처한 환경상의 제반요인, 즉 일상생활의 어려움의 구체적인 양상을 찾아내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가족생활사건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렇게 저소득층의 가족생활사건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저소득층이 중산층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 생활사건에 노출되어 있으며, 생활의 재적응을 필요로 하는 가족생활사건의 집적이나 생활의 변화 등이 심리적 디스트레스, 우울 등의 정신적, 신체적 증상과 관계가 있기(김인숙, 1992; Belle, 1982) 때문이다.

가족생활사건은 생활만족도의 중요한 예측변수이다.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생활사건의 경험은 심리적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낮은 생활만족도와 높은 우울로 연결된다(Ensel & Lin, 1991). 편모의 심리적 복지에도 가족생활사건은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김경신, 김오남, 1998; Burden, 1986), 저소득층 여성의 스트레스를 설명해 주는 요인으로서도 사망이나 사고, 범죄 등과 같은 생활사건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정된다(김인숙, 1992).

가족생활사건이 저소득층 여성가장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족생활사건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심리적 디스트레스(김인숙, 1992, 1994), 복지감(강인, 최혜경, 1998; 김경신, 김오남, 1998; Lavee et al., 1987), 우울(Ensel & Lin, 1991), 생활만족도(최연실, 1996) 등의 종속변수를 통하여 측정된 바 있다. 이 중 생활만족도 개념은 삶에 대한 모든 측면의 주관적인 종합적 평가(이희정, 이숙현, 1995)로서 저소득층 여성가장이 자신의 생활 전반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생활사건의 영향을 알아보는데 적합한 개념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기존 연구(김경신, 김오남, 1997, 1998; 김태현, 조희선, 1991)에서는 대부분 가족생활사건을 스트레스원이라는 단일 변수로 취급하였기 때문에 가족생활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종속변수에 대한 하위 범주의 개별적인 영향력을 조사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McCubbin, Patterson과 Wilson(1982)의 분류에 따라 저소득층 여성가장이 경험한 가족생활사건을 여덟 개의 범주로 분류하여 저소득층 여성가장이 경험한 가족생활사건을 파악하고, 각각의 범주가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2. 사회적 지원과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

가족은 개방체계로서 가족외부와 영향을 주고받으며, 특히 사회적 지원의 영향을 받는다. 사회적 지원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다. Thoits(1982)는 사회적 지원을 애정, 자존심, 승인, 소속, 정체감, 안정감 등과 같은 개인의 기본적인 사회적 요구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족되는 정도라고 하였고, Kahn과 Antonucci(1981)는 애정, 신뢰, 원조와 같은 핵심적인 요소들을 하나 이상 포함하는 대인간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하였다.

저소득층 여성가장이 제공받는 사회적 지원은 대체로 일반가족에 비해서 낮은 수준(변화순, 원영애, 김성경, 김영란, 김민정, 2000; 신화용, 조병은, 1996;

정현숙, 서동인, 1996)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적 지원은 부모, 형제자매와 같은 1차 집단과 친구, 이웃과 같은 2차 집단에 의해서 제공되는데(원효종, 1997; 변화순 외 4인, 2000), 일반적으로 선행연구에서는 부모나 형제자매와 같은 친척으로부터의 지원이 부각되어 왔다. 도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오승환, 1990; 정문자, 이미리, 어주경, 1998)에서도 친척이 가장 중요한 사회관계망으로 나타나서, 저소득층에게도 친척의 중요성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친척 이외의 사회관계망, 예를 들어 친구, 직장동료, 이웃, 또는 종교집단 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친구는 가족이 제공할 수 없는 정서적 안정성을 제공하며 정보적인 면에서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회적 지원의 제공자로 인정을 받고 있다(오선주, 1992; Price-Bonham & Balswik, 1980). 반면에, 저소득층이나 편모의 이웃관계에 대해서는 일관된 결론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 잦은 이사로 인한 주거의 불안정성 때문에 이웃이 친척보다 덜 중시된대거나(오승환, 1990), 도시 이웃관계의 특성으로 인하여 도시에 거주하는 편모의 이웃관계가 소원하다는(김태현, 조희선, 1991) 등 이웃이 친척이나 친구에 비하여 덜 중요한 사회관계망이라는 결과가 있는 반면, 도시영세민의 이웃관계는 일반인보다 강하며 일상적인 도움은 이웃으로부터 받는다(김정자, 변화순, 윤영숙, 강선헌, 제갈정, 1990; 변화순, 윤영숙, 강선헌, 1990; 조은, 조옥라, 1992)는 연구결과도 있다.

사회적 지원은 개인의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지원을 받은 경우 전반적인 심리적 복지수준이 향상되며(O'Bryant, 1988; Simons et al., 1993; Turner, 1981) 우울이 감소한다(Ensel & Lin, 1991)는 등의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저소득층에게 있어 사회적 지원의 증가는 이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양, 특히 자녀양육 스트레스(전춘애, 박성연, 1996)와 양육곤란도(이은혜, 이미리, 1996)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원 중에서도 협조적인 사회적 유대는 친족이나 친구, 직장동료, 사회단체 등 사회관계망과의 관계로 이루어

어지며, 이러한 관계는 스트레스 생활사건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도록 도와준다(이선이, 1995; Kahn & Antonucci, 1981)고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볼 때, 사회적 지원은 저소득층 여성가장에게 있어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을 완화시키거나 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하여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편모에 대한 여러 연구(김경신, 김오남, 1997; 김영희, 1996; 김태현, 조희선, 1991; 안명자, 1994; 한경혜, 1993; Gerstel, 1988; Gladow & Ray, 1986; McLanahan & Booth, 1989; Richard & Schmiege, 1993)에서 사회적 지원이 스트레스나 우울의 감소, 대처능력이나 생활만족도, 심리적 복지, 정신건강의 향상 등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원은 편모에게 스트레스를 정상적인 것으로 수용하도록 돕고,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돕는다(Gladow & Ray, 1986)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원을 사회관계망 구성요소(친척, 친구, 이웃)의 지원과 지원의 유형(정서적, 도구적, 정보적, 사교적 지원)으로 나누어 살펴 본 후, 사회관계망 구성요소별로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3. 자녀의 지원과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

저소득층 여성가장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므로 자녀보호와 양육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가 어렵다. 선행연구에서도 편모에게 자녀양육 및 교육 등 자녀와 관련된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가장 걱정스러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강인, 최혜경, 1998; 김경애, 1998; 정문자 외 2인, 1998; 한경혜, 1993). 이렇게 자녀와 관련된 문제가 편모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지적되는 이유는 저소득층 여성가장들이 실질적으로 자녀를 위해 충분한 시간과 금전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과 함께, 한국 가족의 다른 어머니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이 자신의 행복보다는 자녀의 장래를 중요시하여 자녀에 대한

가치를 무엇보다도 우선시한다(김태현, 조희선, 1991)는 점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자녀에 대한 높은 기대는 주로 부정적이라거나 저소득층에게 특수한 것이라는 관점으로 설명되고 있다. 즉 편모는 남편의 부재로 인해 자녀에게 더욱 집착하여 대부분의 소득을 자녀의 양육비로 지출한다(박충선, 정영숙 1997)거나, 저소득층의 자녀교육에 관심은 자녀가 계층상승이동을 하여 자신보다 나은 생활을 하기를 희망하는 욕구의 반영(박미령, 1992)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저소득층 여성가장과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들의 낮은 소득수준과 남편의 부재 또는 남성 부양자역할의 부재와 같은 구조적 결함으로 인하여 이들 가족이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이라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편모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편모는 경제적 문제와 이중역할의 문제로 인하여 자녀를 충분히 보살필 수 없으며 자녀로 하여금 긴장과 열등감을 갖게 하여 불행하게 만든다(박민선, 1995; Hetherington & Dear, 1975, 김태현, 조희선, 1991에서 재인용)고 한다. 이로 인해 편모가족에서의 성장은 낮은 학업수행, 십대임신, 비행 등 다양한 부정적인 결과와 관련이 있다(Seccombe, 2000)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경제적 어려움이 자녀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이유로는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될수록 부모는 덜 양육적이고, 더 권위주의적이 되며, 비일관적이고 가혹한 신체적 훈육을 사용한다(Conger, Conger, Elder, Lorenz, Simons, & Whitbeck, 1992; Hashima & Amato, 1994)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이나 편모라는 점이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자녀를 부양해야 할 부담감의 대상으로만 취급했을 뿐, 자녀가 어머니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원임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녀는 부양의 대상인 동시에 정서적,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는 존재이다. 실제로 편모에게 자녀는 중요한 자원(김태현, 조희선, 1991)이 되며, 여성가장들은 자녀를 삶의 기쁨의 원천이자 위로자이

며 의지처라고 여긴다(김경애, 1999). 따라서 자녀는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녀를 키우고 교육시키기 위해 경제활동을 해야만 하는 저소득층 여성가장에게 있어 경제활동은 모성역할 수행의 일부분(김경애, 1999)인 만큼 자녀가 여성가장에게 정서적, 도구적 지원을 제공할 경우 이들의 경제활동의 의의가 강화될 것이며, 더 나아가 이는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이다.

실제로 선행연구에서 편모가 자녀와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서로 가깝게 느낄 때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신화용, 조병은, 1996), 이혼한 편모가 자녀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은 생활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Spanier & Thompson, 1984, Kitson, Babri, Roach, & Placidi, 1989에서 재인용)고 하였다. 또한 이혼한 편모에게 자녀의 지원은 편모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허정원, 옥선화, 1998).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녀의 지원을 저소득층 여성가장에게 가족내부로부터 제공되는 유일한 또는 가장 중요한 지원으로 보고, 자녀의 지원이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저소득층 여성가장이 경험한 가족생활사건(가족내긴장, 결혼지위, 자녀교육긴장, 가정경제와 사업긴장, 일-가족 전이긴장, 질병과 가족보호긴장, 상실, 가족의 법규위반)은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저소득층 여성가장에 대한 사회적 지원(친척의 지원, 친구의 지원, 이웃의 지원)은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저소득층 여성가장에 대한 자녀의 지원은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측정도구의 구성

1) 가족생활사건 척도

가족생활사건 척도는 McCubbin과 그의 동료들(1982)이 작성한 가족생활사건과 변화 척도(FILE :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를 저소득층 여성가장에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가족생활사건 척도는 총 37문항으로 가족내긴장, 결혼지위, 자녀교육긴장¹⁾, 가정경제와 사업긴장, 일-가족 전이긴장, 질병과 가족보호긴장, 상실, 가족의 법규위반의 여덟 개 하위범주로 구성되며, 지난 1년 동안 해당 가족생활사건을 경험했는지의 여부에 대해 '그렇다' 1점, '아니다' 0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2) 사회적 지원 척도

저소득층 여성가장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지원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회적 지원에 관한 선행연구들(신기영, 옥선화, 1991; 원효종, 1997; 허정원, 옥선화, 1998; Milardo, 1988)을 참고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사회관계망 구성요소는 친척, 친구, 이웃으로 분류하였으며, 응답자는 각 구성요소에서 가장 친밀하고 상호작용이 활발한 사람을 한 명씩 기입한 후 그 사람을 기준으로 사회적 지원의 정도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원의 유형은 정서적 지원, 도구적 지원, 정보적 지원, 사교적 지원의 총 4개로 분류하였다. 총 14 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척도의 점수범위는

1) 원래의 가족생활사건 척도(FILE)에서 이 영역은 가족의 전이에 관한 긴장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가족생활사건 척도를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도록 재구성한 최연실(1996)의 연구에 따라 이 영역을 자녀교육긴장으로 수정하였다.

친척의 지원, 친구의 지원, 이웃의 지원이 각각 14점에서부터 70점까지이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친척의 지원이 .96, 친구의 지원이 .95, 이웃의 지원이 .97로 높게 나타났다.

3) 자녀의 지원 척도

자녀의 지원 척도는 선행연구들(신기영, 1999; 진미정, 옥선화, 1994; 현은강, 조복희, 1994; Baruch & Barnett, 1986)에서 사용한 척도 중 자녀의 지원에 해당하는 문항을 재구성하였다.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응답방식은 각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지각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리커트 방식이다. 척도의 점수범위는 12점에서 60점까지이며,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84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4) 생활만족도 척도

생활만족도 척도는 현재 자신의 삶의 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묻는 Campbell, Converse와 Rodgers(1976)의 생활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현재 응답자 자신이 처한 상태에 대한 주관적 느낌이나 평가를 알아보는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는데, '피로운-즐거운' 등과 같이 현재 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내용을 대립되게 제시하여 1점부터 5점 중 자신의 현재 생활에 대한 느낌과 가까운 점수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척도의 점수범위는 12점에서 60점이며,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93으로 높게 나타났다.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이 연구의 조사대상은 배우자와 사별, 이혼, 별거 했거나 배우자의 무직 상태로 인하여 가정의 주된 생계 부양자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첫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여성으로, 단순노무직, 판매·영업·서비스직, 단순기능직, 수입이 불규칙한 부업 및 공공근로에 종사하고 있거나 휴직 후 3개월 이내로 구직 중인 저소득층 여성가장이다. 조사대상자의 선정은 서울특별시 소재한

<표 1>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특 성	집 단	빈도(%)
연 령	30~39세	145(41.5)
	40~49세	194(55.6)
	50~59세	10(2.9)
		349(100.0)
직 업	단순노무직	59(17.4)
	판매·영업·서비스직	78(22.9)
	단순기능직	47(13.8)
	부 업	76(22.4)
	공공근로·구직 중	36(10.6)
	자영업	23(6.8)
	기 타	21(6.2)
	340(100.1)	
월소득	50만원 이하	142(43.6)
	51~75만원	98(30.1)
	76~100만원	69(21.2)
	101만원 이상	17(5.2)
	326(100.1)	
가족유형	핵가족	324(91.0)
	확대가족	23(6.5)
	기타	9(2.5)
	356(100.0)	
결혼지위	사별	77(21.6)
	이혼	100(28.1)
	별거	49(13.8)
	남편과 동거	130(36.5)
	356(100.0)	
주거형태	자가	35(9.8)
	전세	126(35.4)
	월세	70(19.7)
	영구임대아파트	90(25.3)
	친척집	22(6.2)
	복지시설	8(2.2)
	기타	5(1.4)
	356(100.0)	
여성가장이 된 기간	2년 미만	87(25.6)
	2년~5년 미만	105(30.9)
	5년~10년 미만	98(28.8)
	10년~15년 미만	42(12.4)
	15년 이상	8(2.4)
	340(100.1)	
자녀수	1명	134(38.5)
	2명	187(53.7)
	3명	27(7.8)
	348(100.0)	

‘일하는 여성의 집’ 교육생, 서울특별시 소재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자, 종합병원·노동자 회관·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소개한 자를 접근목록으로 하여 유의추출하였다. 본조사는 탐색조사와 예비조사를 거쳐 완성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2000년 2월 14일부터 2000년 3월 1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자료 중 질문지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부실한 경우를 제외한 최종 356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4. 자료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을 구하여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사한 후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다. 이어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가족생활사건, 사회적 지원, 자녀의 지원이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통계처리는 SPSS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저소득층 여성가장이 경험한 가족생활사건

저소득층 여성가장이 지난 1년간 경험한 가족생활사건은 전체 37건 중 평균 11.8건이었다. 가족생활사건의 하위범주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와 같다.

가족구성원이나 시가·친정과의 관계 및 집안일과 관련된 사건을 포함하는 가족내긴장은 전체 9건 중 평균 2.39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과의 별거나 이혼, 전남편과의 문제해결의 어려움에 해당하는 사건인 결혼지위는 전체 2건 중 평균 .52건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자녀의 학업성적 부진 및 대학입시 준비인 자녀교육긴장은 전체 2건 중 .53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입의 감소, 생활비의 부담, 부채와 대출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가정경제와 사업긴장은 전체 5건 중 평균 3.52건을 경

<표 2> 저소득층 여성가장이 경험한 가족생활사건 (N=356)

하위범주	최도점수범위	평균	표준편차
가족내긴장	0- 9	2.39	1.95
결혼지위	0- 2	.52	.74
자녀교육긴장	0- 2	.53	.66
가정경제와 사업긴장	0- 5	3.52	1.38
일-가족 전이긴장	0- 4	1.81	1.43
질병과 가족보호긴장	0- 8	2.25	1.54
상실	0- 3	.48	.69
가족의 법규위반	0- 4	.31	.61
합 계	0-37	11.80	2.31

험했다고 보고하여 과반수 이상의 사건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직, 사직, 해고와 직업만족도 감소 등에 해당하는 일-가족 전이긴장은 전체 4건 중 1.81건을, 가족구성원의 질병, 부상 및 이에 대한 간호와 금전적 원조 등을 포함하는 질병과 가족보호긴장은 전체 8건 중 평균 2.25건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가족구성원 및 친척, 친구의 사망인 상실은 전체 3건 중 평균 .48건을, 가정폭력, 가출, 정학 및 퇴학 등 가족의 법규위반은 전체 4건 중 평균 .31건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여 비교적 낮은 점수분포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질병과 가족보호긴장의 경우 일반 중산층 가족을 대상으로 한 최연실(1996)의 연구결과²⁾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이다. 종합하면, 가족생활사건의 다른 범주에 비하여 가정경제와 사업긴장 사건을 많이 경험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 연구와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김경신, 김오남, 1997, 1998)에서 편모가 경제문제 영역의 가족생활사건을 가장 많이 경험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2. 저소득층 여성가장에 대한 사회적 지원

저소득층 여성가장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전체적인 경향과 지원의 유형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

2)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한 최연실(1996)의 연구에서 청소년자녀가 가족의 부인은 총 5건의 질병과 가족보호긴장 사건 중 평균 .88건을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다.

〈표 3〉 저소득층 여성가장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유형별 평균과 표준편차

(N=356)				
지원의 유형	평 균	최도범수범위	중간값	표준편차
총 지원	130.42	42-210	126	32.55
정서적 지원	19.89	6- 30	18	5.45
도구적 지원	38.65	12- 60	36	10.24
정보적 지원	36.69	12- 60	36	9.96
사교적 지원	35.17	12- 60	36	9.34

과 같다.

저소득층 여성가장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평균 130.42점(최도점수범위: 42점-210점)으로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의 유형별로 볼 때, 정서적 지원은 평균 19.89점(최도범수범위: 6점-30점)으로 중간값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고, 도구적 지원도 평균 38.65점(최도범수범위: 12점-60점)으로 중간값보다 약간 높았다. 정보적 지원의 경우는 평균 36.69점(최도범수범위: 12점-60점)으로 중간 수준이었고, 사교적 지원은 평균 35.17점(최도범수범위: 12점-60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낮았다.

사회적 지원의 양을 지원의 유형별로 비교해 보면³⁾, 저소득층 여성가장은 정서적 지원을 가장 많이 받았고 이어 도구적 지원, 정보적 지원, 사교적 지원의 순이었다. 이는 편모나 저소득층 여성들이 정서적 지원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는 선행연구들(신화용, 조병은, 1996; 정문자 외 2인, 1998; 정현숙, 서동인, 1996; 최해경, 1997)의 결과와 일치한다.

〈표 4〉 저소득층 여성가장에 대한 사회관계망 구성요소별 지원의 평균과 표준편차

(N=356)				
사회적 지원	사회관계망	친 척	친 구	이 윗
	사회적 지원 (14-70)	평균	48.02	44.43
	표준편차	15.18	14.36	15.95
정서적 지원 (2-10)	평균	7.20	6.99	5.70
	표준편차	2.50	2.38	2.61
도구적 지원 (4-20)	평균	14.69	12.78	11.18
	표준편차	4.84	4.52	4.89
정보적 지원 (4-20)	평균	12.99	12.72	10.97
	표준편차	4.61	4.35	4.90
사교적 지원 (4-20)	평균	13.15	11.93	10.12
	표준편차	4.54	4.40	4.51

저소득층 여성가장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사회관계망의 구성요소별로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총 지원(최도범수범위 : 14점-70점)은 친척의 지원이 평균 48.02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친구의 지원이 평균 44.43점, 이웃의 지원은 평균 37.97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친척의 지원과 친구의 지원은 중간값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이웃의 지원은 중간값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보였다.

저소득층 여성가장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지원의 유형별로도 일관성 있게 친척의 지원이 가장 많았고, 친구의 지원이 그 다음이며, 이웃의 지원은 가장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정서적 지원은 친척의 지원이 가장 높았으나 친구의 지원도 유사한 수준이었고, 도구적 지원은 친척, 친구, 이웃의 차이가 분명하였다. 정보적 지원은 친척의 지원과 친구의 지원이 비슷한 수준이며, 사교적 지원은 사회관계망의 구성요소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한편 사회관계망의 구성요소별로 지원의 주제공자를 조사한 결과, 친척의 경우에는 친정형제자매가 63.9%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친정어머니가 17.9%이었다. 이는 친척의 지원이 친정식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가장 도움을 많이 제공하는 친구는 종교친구와 직장친구가 31.1%와 30.6%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학교친구가 21.0%이었다.

4. 저소득층 여성가장에 대한 자녀의 지원

저소득층 여성가장에 대한 자녀의 지원은 평균 43.13점(최도범수범위 : 12점-60점)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렇듯 저소득층 여성가장에 대한 자녀의 지원 수준이 높은 것은 편모가족의 부모자녀관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신화용, 조병은, 1996; 변화순 외 4인, 2000; 정현숙, 서동인, 1996; 최해경, 1997)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저

3) 정서적 지원의 문항 수가 다른 지원 유형의 문항 수와 달라 상대적 비교가 불가능하여 문항 평균점수를 사용하였다.

소득층 여성가장에 대한 자녀의 지원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5. 가족생활사건, 사회적 지원과 자녀의 지원에 따른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가족생활사건, 사회적 지원과 자녀의 지원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위계적 중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5>와 같다. 회귀분석의 순서에 따라, 가족생활사건에 따른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를 살펴본 후, 사회적 지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마지막으로 자녀의 지원이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다.

1) 가족생활사건에 따른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

가족생활사건의 하위범주가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가족내긴장($\beta = -.31, p < .001$)이고, 이어 가정경제와 사업긴장($\beta = -.14, p < .01$), 질병과 가족보호긴장($\beta = -.12, p < .05$)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가족생활사건의 하위범주는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에 부적의 영향을 미쳐서 가족내긴장, 가정경제와 사업긴장, 질병과 가족보호긴장을 많이 경험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았다. 가족생활사건의 하위범주들은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를 23% 설명하였다.

2) 사회적 지원에 따른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

사회적 지원이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1단계 회귀모델에 친척, 친구, 이웃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을 추가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단계 중회귀분석

<표 5> 가족생활사건, 사회적 지원과 자녀의 지원이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N=356)

관련변수	생활만족도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가족생활사건						
가족내긴장	-1.56	-.31***	-1.49	-.29***	-1.05	-.21***
결혼지위	.71	.05	.70	.05	.59	.04
자녀교육긴장	.61	.04	.66	.04	.85	.06
가정경제와 사업긴장	-1.01	-.14**	-.96	-.13*	-.84	-.12*
일-가족 전이긴장	-.58	-.08	-.55	-.08	-.45	-.07
질병과 가족보호긴장	-.76	-.12*	-.75	-.12*	-.90	-.14**
상실	-1.03	-.07	-.95	-.07	-.93	-.07
가족의 범규위반	-.94	-.06	-.97	-.06	-.90	-.06
사회적 지원						
친척의 지원			-.02	-.03	-.03	-.04
친구의 지원			.12	.17**	.10	.15**
이웃의 지원			-.02	-.03	-.01	-.03
자녀의 지원					.36	.24***
상수	46.70		42.80		26.41	
R ²	.23***		.26***		.31***	
R ² 변화량			.03*		.05***	

* p < .05 ** p < .01 *** p < .001

결과, 사회관계망 구성요소의 사회적 지원 중 친구의 지원만이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beta=.17, p<.01$). 즉 저소득층 여성가장이 친구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2단계의 설명력은 26%로 1단계에서 약 3% 증가하였다.

2단계의 분석에서 사회적 지원 중 친구의 지원은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친척의 지원과 이웃의 지원은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적 지원이 적응이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신화용, 조병은, 1996; 정문자 외 2인, 1998)를 일부 지지하는 결과로서, 이 연구의 저소득층 여성가장에게 가장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관계망이 친척으로 나타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지원의 양보다는 주어진 지원에 대한 수용자의 만족도와 같은 평가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지원의 유용성은 변화될 수 있다는 Barrera(1981, Nath, Borkowski, Whitman, & Schellenbach, 1991에서 재인용)의 주장처럼, 저소득층 여성가장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양과 이들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비례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3) 자녀의 지원에 따른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

자녀의 지원이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3단계에서는 가족생활사건과 사회적 지원에 자녀의 지원을 추가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녀의 지원은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4, p<.001$). 즉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는 자녀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높아진다. 3단계에서는 1단계와 2단계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드러난 가족생활사건의 하위범주인 가족내긴장, 가정경제와 사업긴장, 질병과 가족보호긴장과 사회적 지원 중 친구의 지원도 여전히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3단계 회귀모델의 설

명력은 2단계에서 약 5% 증가하였다.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모든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녀의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가족내긴장, 친구의 지원, 질병과 가족보호긴장, 가정경제와 사업긴장의 순으로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가족내긴장, 가정경제와 사업긴장, 질병과 가족보호긴장을 적게 경험할수록, 친구와 자녀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 이 변수들은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를 31% 설명하였다.

VI.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저소득층 여성가장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가족생활사건의 경험정도를 파악하여, 이들이 주로 경험하는 생활사건상의 문제는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또한 가족생활사건을 통하여 유발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성가장에 대한 지원을 가족외적 지원인 사회적 지원과 가족내적 지원인 자녀의 지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가족생활사건, 사회적 지원과 자녀의 지원이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가족내긴장, 가정경제와 사업긴장, 질병과 가족보호긴장 사건을 많이 경험한 저소득층 여성가장은 생활만족도가 낮다. 저소득층 여성가장은 가족생활사건의 하위범주 중 가정경제와 사업긴장을 가장 많이 경험하며, 이들의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하위범주는 가족내긴장이다. 따라서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생활사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특히 이들이 가정경제와 직업과 관련된 생활사건을 많이 경험하며,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가족내 긴장과 질병과 가족보호긴장도 상당부분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저소득층 여성가장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저소득층 여성가장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보통 수준이다. 저소득층 여성가장이 가장 많이 받는 사회적 지원은, 사회관계망 구성요소별로 보면 친정식구를 중심으로 한 친척의 지원이고, 지원의 유형 중에서는 정서적 지원이다. 그러나, 사회관계망의 구성요소 중 친구의 지원만이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듯 지원의 양에서는 친척의 지원이 가장 많지만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친구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는 지원의 양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따라서 사회적 지원의 양을 무조건적으로 증가시키기보다는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원의 하위 유형과 이를 제공하는 사회관계망의 구성요소를 찾아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저소득층 여성가장에 대한 자녀의 지원은 높은 수준이었으며, 자녀의 지원을 많이 받은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가 높다. 이러한 결론은 물론 자녀가 저소득층 여성가장에게 제공한 직접적인 지원의 효용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모자녀관계의 성격을 감안할 때 자녀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자녀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 등이 저소득층 여성가장에게 간접적인 지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우리 나라의 고유한 모자녀관계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과거부터 이어 내려오는 가족주의가치는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어머니에게 자녀의 존재는 생명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여성가장에게 자녀가 긍정적 자원으로 기능한다고 본다. 이와 같이 자녀의 지원이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를 높이므로 보다 효율적인 자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의 주체인 자녀에 대한 사회

적 지원과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모자녀관계를 강화하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을 모색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연구의 결론을 통해서 보면 저소득층 여성가장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이들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소득층 여성가장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서는 무엇보다도 이들이 지속적으로 일정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수요가 있고 능력과 적성도 최대한 고려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효율적인 취업알선을 위해서는 직업훈련기관과 기업을 연계한 조직적인 취업알선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취업 후 사후관리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가장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는 취업을 희망하는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및 알선도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녀의 지원은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 제고에 결정적인 요인이므로, 자녀가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자녀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때는 자녀의 연령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 자녀에게는 저렴하면서 양질의 보육기관 및 방과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호의적인 환경에서 정상적인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청소년기 자녀에게는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자녀라는 점이 청소년기의 사회심리적 갈등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지지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이들과의 자조집단 형성을 돕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사용한 가족생활사건 척도는 경험여부만을 측정하여 경험빈도를 측정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가족생활사건의 경험여부에서 끝나지 않고 경험회수와 영향력 등을 조사함으로써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가족생활사건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

을 것이다. 둘째, 사회적 지원을 측정하면서 친척, 친구, 이웃의 지원만을 제시하여 사회관계망의 다른 구성요소로부터의 지원을 고려하지 못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사회관계망의 구성요소를 효율적으로 유형화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다양한 사회관계망의 구성요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질문지를 통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가족생활사건의 구체적인 경험이나 사회적 지원과 자녀의 지원의 다양한 모습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삶에 보다 더 근접하기 위해서는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연구가 후속연구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한계점이 있으나, 우리나라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의 생활만족도 제고에 도움이 되는 요인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만족도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탐색하여 보았으므로 복지정책과 상담, 교육 등 실천적인 영역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인, 최혜경(1998). 여성의 배우자 사별 스트레스 적응 과정에서 개인 내적 요인들의 중재적 역할. *대한가정학회지*, 36(4), 95-107.
- 김경신, 김오남(1997). 편모가족의 가족자원, 대처와 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지*, 35(4), 211-228.
- 김경신, 김오남(1998). 편모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 *대한가정학회지*, 36(2), 19-34.
- 김경애(1998). 편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정책과 과제. *인문과학연구*, 4, 215-243.
- 김경애(1999). 흔들리는 모성, 지속되는 모성역할: 저소득층 모자가정의 여성가장. *한국여성학*, 15(2), 87-115.
- 김영희(1996). 빈곤층 편모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부모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인숙(1992). 도시빈곤가족 여성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사회 스트레스 모델의 유용성. *사회복지연구*, 4, 27-56.
- 김인숙(1994). 빈곤여성의 사회적 환경요인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와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자, 변화순, 윤영숙, 강선혜, 제갈정(1990). 영세 지역 가족관계 및 사회적 연결망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김태현, 조희선(1991). 모자가족과 부부가족간의 가족스트레스 관련변인에 관한 비교연구. *가족학논집*, 3, 99-129.
- 박미령(1992). 도시 저소득층 가족의 부모·자녀문제. *한국가족학연구회*. 도시 저소득층의 가족문제. 서울: 하우.
- 박민선(1995). 다양한 가족생활.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가족과 한국사회*. 서울: 경문사.
- 박충선, 정영숙(1997). 편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존전략과 복지대책 방안에 관한연구. *성공논총*, 28(3), 393-450.
- 변화순, 원영애, 김성경, 김영란, 김민정(2000). 최근 가족해체 실태 및 복지대책. *한국여성개발원*.
- 변화순, 윤영숙, 강선혜(1990). *한국가족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보건복지부(1999). *생활보호대상자 현황분석*.
- 신기영(1999).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의 보상/비용에 따른 심리적 복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기영, 옥선화(1991). 중년기주부의 위기감과 사회관계망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111-128.
- 신화용, 조병은(1996). 편모가 인지한 자원과 편모의 심리적 적응. *가족학논집*, 8, 57-76.
- 안명자(1994). 친족지원과 사별한 편모의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선주(1992). 사회계층별로 본 가족의 주요 사회망, 사회망과 가족의 참여 및 구직과 사회망. *대한가정학회지*, 30(3), 177-191.
- 오승환(1990). 도시빈민의 사회적 관계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원효종(1997). 도시 핵가족 주부의 사회관계망 유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선이(1995). 가족의 위기.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가족과 한국사회. 서울: 경문사.
- 이은해, 이미리(1996).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관계망과 양육곤란도 지각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7(2), 61-78.
- 이희정, 이숙현(1995). 취업모의 심리적 안녕 -긍정적 정서와 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3(6), 25-41.
- 전춘애, 박성연(1996). 자녀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5), 115-129.
- 정문자, 이미리, 어주경(1998). 도시 저소득층 가족의 제특성과 주부의 스트레스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6), 13-26.
- 정현숙, 서동인(1996). 편부모가정의 자녀가 인지한 가족환경과 사회·심리적 적응. 한국가족관계학회 학술대회자료집, '96가정복지세미나 일어나는 편부모 가정 -그들의 현실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제-. 37-64.
- 조 은, 조옥라(1992). 도시빈민의 삶과 공간: 사당동 재개발지역 현장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진미정, 옥선화(1994). 중년기 여성의 어머니역할 수행부담과 심리적 복지. 대한가정학회지, 35(2), 1-14.
- 최연실(1996). 청소년자녀기 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혜경(1997). 사회적 지지망 구조가 편부모 가족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3, 377-395.
- 통계청(1997).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
- 한경혜(1993). 한국 이혼부부의 적응과 관련변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가족학연구회 편. 이혼과 가족문제. 서울: 하우. 79-104.
- 허정원, 옥선화(1998). 이혼한 편모의 가족 및 사회 관계망 지원과 이혼 후 적응. 생활과학연구(서울대), 23, 37-48.
- 현은강, 조복희(1994). 부모의 역할만족도 척도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2(1), 103-117.
- Baruch, G. K. & Barnett, R. C. (1986). Role quality, multiple role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midlife wome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578-585.
- Belle, D.(Ed.) (1982). *Lives in stress: Women and depression*. Beverly: Sage Publications.
- Burden, D. S. (1986). Single parents and the work setting: The impact of multiple job and home life responsibilities. *Family Relations*, 35, 37-43.
-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Y.: Russel Sage Foundation.
- Conger, R. D., Conger, K. J., Elder, G. H., Jr., Lorenz, R. O., Simons, R. L., & Whitbeck, L. B. (1992). A family process model of economic hardship and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boys. *Child Development*, 63, 526-541.
- Ensel, W. & Lin, N. (1991). The life stress paradigm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2, 321-341.
- Gladow, N. W. & Ray, M. P. (1986). The impact of informal support systems on the well-being of low income single parents. *Family Relations*, 35, 113-123.
- Hashima, P. Y. & Amato, P. R. (1994). Poverty, social support, and parent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65, 394-403.
- Kahn, R. & Antonucci, T. (1981). Convoys of social support: a life-course approach. In S. B. Kiesler, J. N. Morgan, & V. K. Oppenheimer (Eds.), *Aging: Social change*. (pp. 383-405). San Diego: Academic Press.
- Kitson, G. C., Babri, K. B., Roach, M. J., & Placidi, C. S. (1989). Adjustment to widowhood and divorce. *Journal of Family Issues*, 10, 5-32.
- Lavee, Y., McCubbin, H. I., & Olson, D. H. (1987). The effect of stressful life events and

- transitions on family functioning and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857-873.
- McCubbin, H. I., Patterson, J. M., & Wilson, L. R. (1982). FILE: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 In D. H. Olson, H. I. McCubbin, H. Barnes, A. Larsen, M. Muxen, & M. Wilson (Eds.), *Family Inventories*. (pp. 69-87). St. Paul, Minnesota: University of Minnesota.
- McLanahan, S. & Booth, K. (1989). Mother-only families : Problems, prospects and politic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557-580.
- Milardo, R. M. (1988). Families and social networks: an overview of theory and methodology. In R. M. Milardo(Ed.), *Families and social networks*. (pp. 13-47). Newbury Park: Sage.
- Nath, P. S., Borkowski, J. G., Whitman, T. L., & Schellenbach, C. J. (1991). Understanding adolescent parenting: The dimensions and functions of social support. *Family Relations*, 40, 411-420.
- O'Bryant, S. (1988). Sibling support and older widows'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173-183.
- Price-Bonham, S. & Balswick, J. O. (1980). The noninstitutions : Divorce, desertion, and re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959-972.
- Richards, L. N. & Schmiede, C. J. (1993). Marital disruption,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behavior problems i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295-307.
- Secombe, K. (2000). Families in poverty in the 1990s: Trends, causes, consequences, and lessons learned. *Journal of Marriages and the Family*, 62, 1094-1113.
- Simons, R. L., Beaman, J., Conger, R. D., & Chao, W. (1993). Stress, support, and antisocial behavior trait as determinants of emotional well-being and parenting practices among single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385-598.
- Thoits, P. A. (1982). Conceptual,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problems in studying social support as a buffer against life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3, 145-159.
- Turner, R. J. (1981). Social support as a contingency in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 357-367.